DOI | https://DOI.org/10.21481/jbunka..80.201902.165.

학습자 수준별 오용(-tekure) 원인에 대해서

趙 南 星*
(e-mail : chons@hanbat.ac.kr)

<목 차>

1 . 들어가는 말
2. 선행 연구
2.1 오용 원인에 대한 연구
2.2 ～てくれ 오용
3. 조사 방법
3.1 조사 참여자
3.2 조사 자료
3.3 조사 순서
3.4 분석 방법
4. 조사 결과 및 고찰
4.1 학습자 수준별 ～てくれ오용에 대한 학습 사정
4.2 ～てくれ 오용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4.3 ～てくれ 오용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판단
4.4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수준별 판단의 비교
4.5. ～てくれ 오용의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
5. 맺는 말

キーワード：学習者水準(learners' level), 誤用の原因(reason of misuse), ～てくれ(～tekure), 原因度(reason level), 依頼表現(request expression)

1.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 즉 학습 수준에 따라서, 오용 원인에 대한 판단(內省)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오용 연구는 어떠한 오용이 존재하고,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이고, 왜 오용을 일으키고, 어떻게 정정하면 되는가를 조사하여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인 학습자의 수많은 일본어 오용이 보고되고, 그 정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용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1] 대체로 교사 또는 연구자에 의한 오용 원인의 단순한 기술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학습자 관점에서의 원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어교육
1) 2.1 참조

www.kci.go.kr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バスを乗る。(→に) : 한국어의 '을/를'을 を로 직역한 오용]과 같은 것은 오용 원인에 대한 기술이 아닌 단순한 표층적인 현상의 설명에 불과하다. 학습자의 판단을 살펴보는 것이 본격적인 오용 원인의 분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 수준별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종종 범하는 의뢰 표현 ～てくれ의 오용[2]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선행 연구

2.1 오용 원인에 대한 연구

趙(2004)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 분석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오용 분석 논문(93편)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용 원인에 중점을 둔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현재(2018년 8월)까지 대강 190여 편의 오용 분석 관련 논문이 있는데[3], 이중에서 아래의 2편의 논문이 있다.

趙(2006a)의 「오용 원인의 실험적 분석」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종종 틀리는 40개의 오용, 즉 음운론, 어휘론, 형태론(활용), 통사·의미론 오용에 대한 원인(40개 오용별 2개 사항)에 대해서, 교사(29명)와 학습자(일본어 전공자 3, 4학년 각각 26명, 28명)의 판단을 보고하고 있다. 교사와 학습자는 개개의 오용 원인에 대해서 판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학년보다는 4학년 학습자와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趙(2006b:183)「'形容詞(-い)+だと思う'형의 오용 원인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판단」에서는 '形容詞(-い)+だと思う'형의 오용 원인(10개 사항), 즉 교수·학습 과정(선행 학습)에서는 학습자(일본어 전공자 2, 3, 4학년 각각 32명씩)보다 교사(24명), 학습한 내용의 표현(산출) 과정(한국어 간섭)에서는 교사보다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 2편의 논문에서는 다양한 오용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나, ～てく

2) 2.2 참조

3) 국회도서관(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SearchList.do)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에서 검색(2018.8월).

www.kci.go.kr

れ 관련 오용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습자 수준(학년)에 따른 오용 원인의 판단을 다루고 있으나, 그 결과에는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 수준 즉 학습 수준(JLPT의 N1, N2, N3)에 따른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形容詞(-い)+だと思う'형의 오용처럼 한국인 학습자의 전형적인 일본어 오용 원인 규명에도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2.2 ～てくれ 오용

의뢰표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특히 ～てくれ에 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학습 초기에 배우는 ～てください를 다양한 장면에서, 특히 윗사람에게 의뢰표현으로 다용되고 있는 것은 언급되고 있다.[4)]

～てくれ 의뢰표현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趙(1997)「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依頼の文末表現に対する分析と評価」와 趙(1999) 「韓国人 日本語学習者의 依頼文末表現에 대한 分析과 評価 : 男性의 경우」가 있다. 양자는 같은 장면과 상대에서의 의뢰표현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대가 전자는 여성(여자 대학생 : 한국인 72명, 일본인 54명) 후자는 남성(남자 대학생 : 한국인 70명, 일본인 51명)의 경우이다. 장면은 2개로 장면1은 '창문을 닫아 달라고 부탁하다', 장면2는 '볼펜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다'이다. 상대는 '같은 학년의 친한 사람'이다.[5)] 여기서 ～てくれ를 '장면1-상대(여성)'는 한국인 23명, 일본인 0명, '장면2-상대(여성)'는 한국인 22명, 일본인 0명, '장면1-상대(남성)'는 한국인 22명, 일본인 2명, '장면

4) 金(2006:39)의「日本語と韓国語の依頼表現の使用実態」에서는 다양한 장면과 상대[가족(위, 아래 관계), 가족 이외(위, 아래, 동등 관계]에 대한 의뢰표현의 조사에서, 일본인 대학생은 ～てくださ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인 대학생은 특히 윗사람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아래는 場面과 相手로 상세한 조사 내역은 조(1997)의 pp.95-105, 趙(1999)의 pp.254-258를 참조.

【場面Ⅰ】
『相手』に窓を閉めてもらうことを頼む。授業が始まろうとしていますが、あいにく外からものすごくうるさい音がして落ち着きません。自分で窓を閉めようと思ったのですが、ちょうど窓のすぐそばに『相手』が座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場合、あなたは窓を閉めてもらうために『相手』にどのように言いますか。

【場面Ⅱ】
『相手』にボールペンを貸してもらうことを頼む。学内で友達に市内電話をかけているところです。友達からメッセージがあって、メモをとりたいのですが、あいにく書くものがありません。すると、『相手』が手にボールペンを持って、後ろで待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場合、あなたはそのボールペンを借りるために、『相手』にどのように言いますか。

『相手』 男性/女性の同学年(年齢)で、よく話す親しい人

www.kci.go.kr

2-상대(남성)'는 한국인 21명, 일본인 2명이 사용하고 있다. ～てくれ가 각각의 '장면-상대'에서 한국인 대학생은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인 대학생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てくれ의 오용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3. 조사 방법

3.1 조사 참여자

조사 참여자는 H대학교 일본어 전공자로 JLPT N1·N2·N3 수준(합격자)의 학습자[6] 각각 28명·28명·28명으로, 이들 순서로 학습 수준이 높다고 간주한다. 이들은 N1 학습자, N2 학습자, N3 학습자로 표기하나, <표> <그림> 등에서는 '학습자'를 생략하고 N1, N2, N3라고 표기한다.

3.2 조사 자료

조사 자료인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은, 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7]와 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3.3 조사 순서

<조사지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조사는 학습자의 양해(연구 취지를 설명)를 얻어서 이루어졌고, 조사자는 학습자에게 조사에 대답하기 이전에 <보기> 및 원인 10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

6) 학습자 수준에서 JLPT(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점수가 없고 JPT日本語能力試験(Japanese Proficiency Test) 점수가 있는 5명은 아래를 참고로 하였다. 이들 모두는 N3에 해당한다.
JLPT 대비 JPT 권장점수는 각각 N1 660점 이상, N2 525점 이상, N3 430점 이상이다.
(http://exam.ybmnet.co.kr/jpt/introduction/introduction_05.asp)

7) 조(2014)의 『일본어교육을 위한 오용 연구』 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31명)의 협조를 얻었다. 이 교재의 8장(pp.259-282)에는 조(1997)「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依頼の文末表現に対する分析と評価」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www.kci.go.kr

<조사지의 일부>

✱ 이 조사에서는 친한 사이에 무언가 부탁할 때 발생하는 문말(文末) 표현의 오용(<보기>)과 그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보기>
친한 사이에 무언가 부탁할 때 우리말은 「～해 줘」가 일반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로 학습자는 종종 「～てくれ」를 사용한다. 그러나 「～てくれ」는 우리말과 달리 명령조로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이 경우 「～てくれる」 또는 「～て」를 많이 사용한다.

학습자	전공(학과) : 학년 :	JLPT N	JPT 점	성별 남·여

1. <보기>와 같은 오용에 대해서 지금(이번 조사에서) 처음 들어 본다.
①처음 들어 본다. ②들어 본(학습한) 적이 있다.
…

*원인 10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0%～100%의 하나에 ○표 하세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일본어 「～て」는 우리말 「～해」, 「～てくれ」는 「～해 줘」에 대응시켜, 우리말 「～て」)보다 친근감이 있는(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해 줘」(「～てくれ」)를 사용하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3.4 분석 방법

원인 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N1, N2, N3)의 사용 정도, 즉 평균득점은 척도치 '0% 10% … 90% 100%'는 '0 1 … 9 10'으로 나타내어 구했으며, 최저득점은 0.0이고 최고득점은 10.0이다. 원인❶～❿(→<표1>)의 사용 정도인 평균득점은 원인도(原因度)를 나타낸다.

4. 조사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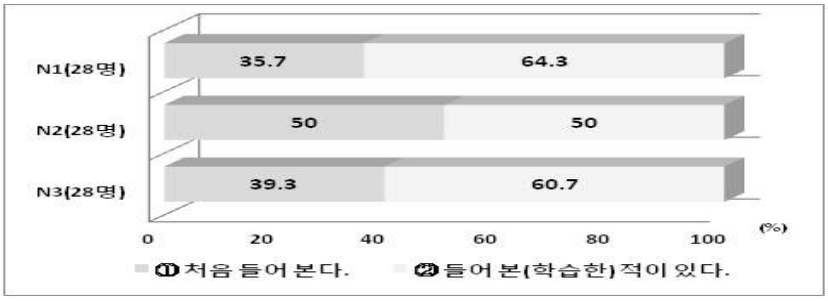
4.1 학습자 수준별 ～てくれ 오용에 대한 학습 사정

4.1.1 ～てくれ 오용의 학습 경험

<그림1>은 '～てくれ 오용의 학습 경험' 즉 '1. <보기>와 같은 오용에 대해서 지금(이번 조사에서) 처음 들어 본다.'에 대한 회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에서 보면, 「②들어 본(학습한) 적이 있다」의 비율이 50.0% 이상으로 N1(64.3%), N3(60.7%), N2(50.0%) 학습자 순서로 높다.

www.kci.go.kr

여기서는 학습 수준과 ～てくれ 오용의 학습 경험이 비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한 경험은 모든 학습자(N1, N2, N3)가 50.0%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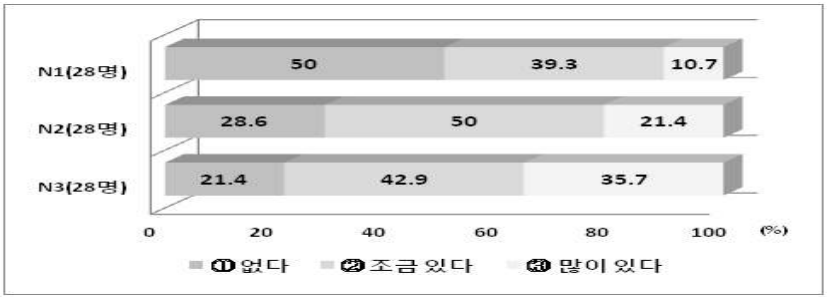


<그림1> ～てくれ 오용의 학습 경험

4.1.2 ～てくれ 오용의 경험

<그림2>는 '～てくれ 오용의 경험' 즉 '2. 본인도 <보기>와 같은 오용을 범한 적이 있다.'에 대한 회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에서 보면, 모든 학습자에 있어서 「①없다」보다 「②조금 있다, ③많이 있다」가 많으며(N1 50.0%, N2 71.4%, N3 78.6%), 「②조금 있다」와「③많이 있다」가 N3, N2, N1 학습자 순서로 비율이 높다.

여기서는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てくれ 오용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모든 학습자가 50.0% 이상이다.



<그림2> ～てくれ 오용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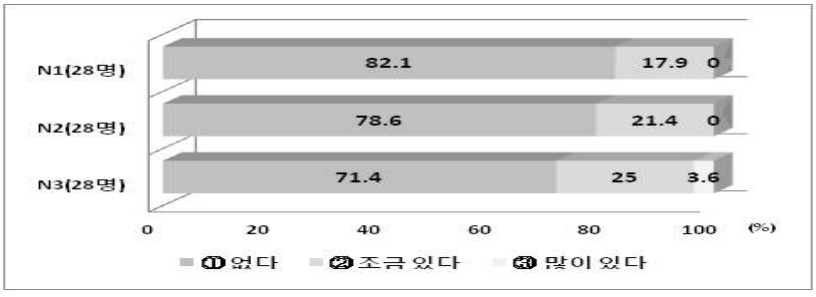
4.1.3 ～てくれ 오용에 대해서 정정 받은 경험

<그림3>은 '～てくれ 오용에 대해서 정정 받은 경험' 즉 '3. <보기>와 같은 오용을 범해서, 교사나 주위 사람한테 지적(정정)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한 회

www.kci.go.kr

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에서 보면, 정정 받은 경험(「②조금 있다, ③많이 있다」)은 N1(17.9%), N2(21.4%), N3(28.4%) 학습자의 순서로 낮다.

여기서는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てくれ 오용에 대해서 정정 받은 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모든 학습자가 28.4% 이하로 많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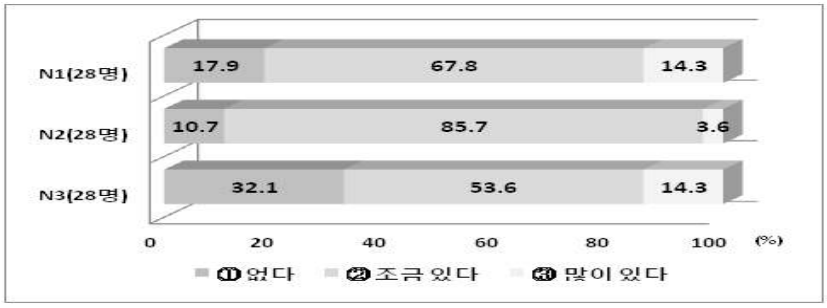


<그림3> ～てくれ 오용에 대해서 정정 받은 경험

4.1.4 ～てくれ 오용의 접촉 경험

<그림4>는 '～てくれ 오용의 접촉 경험' 즉 '4. 주위에서 <보기>와 같은 오용을 들은(본) 적이 있다.'에 대한 회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에서 보면 N1, N2 학습자는 N3 학습자보다, 「①없다」보다 「②조금 있다, ③ 많이 있다」(N1 82.1%, N2 89.3%, N3 67.9%)의 비율이 높다.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N1, N2)가 낮은 학습자(N3)보다 ～てくれ 오용에 대한 접촉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모든 학습자가 67.9%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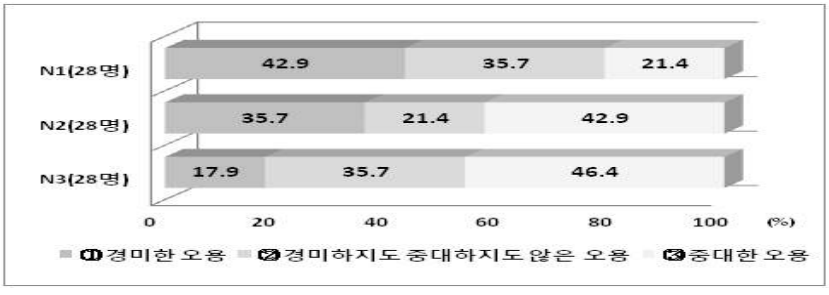
<그림4> ～てくれ 오용의 접촉 경험

4.1.5 ～てくれ 오용의 언어전달상의 중대성

www.kci.go.kr

<그림5>는 '~てくれ 오용의 언어전달상의 중대성' 즉 '5. <보기>와 같은 오용은 언어전달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회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5>에서 보면, N1, N2, N3 학습자의 순서로 「①경미한 오용」으로 판단한 비율이 높고(42.9%, 35.7%, 17.9%), 「③중대한 오용」으로 판단한 비율이 낮다(21.4%, 42.9%,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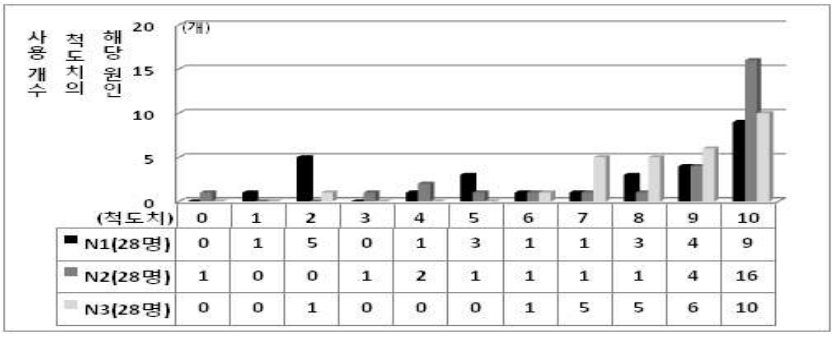
여기서는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てくれ 오용에 대해서 언어전달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 ~てくれ 오용의 언어전달상의 중대성

4.2 ~てくれ 오용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그림6>은 '~てくれ 오용 원인에 대한 척도치의 사용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원인 오용 10개 사항에 대한 원인도를 나타내는 척도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에서 0% 이외에 표시한 개수(인원수)이다. <그림6>에서 보면 N1, N2, N3 학습자는 7, 8, 9, 10개를 표시한 인원수가 각각 17명, 22명, 26명으로, 오용 원인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학습자 수준이 낮을수록 많다.



(척도치)	0	1	2	3	4	5	6	7	8	9	10
N1(28명)	0	1	5	0	1	3	1	1	3	4	9
N2(28명)	1	0	0	1	2	1	1	1	1	4	16
N3(28명)	0	0	1	0	0	0	1	5	5	6	10

<그림6> ~てくれ 오용 원인에 대한 척도치의 사용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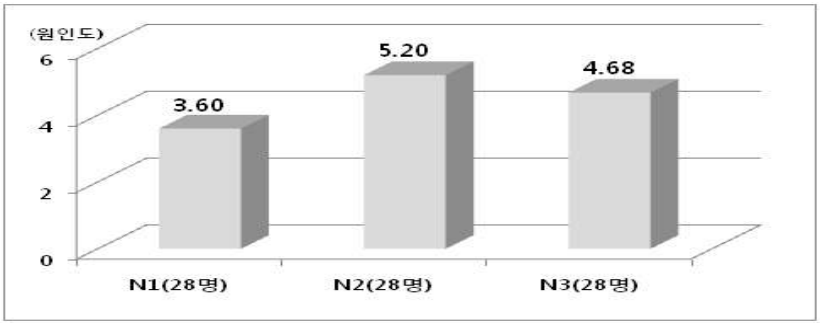
www.kci.go.kr

여기서는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てくれ 오용 원인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 ～てくれ 오용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판단

<그림7>은 '～てくれ 오용의 원인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7>에서 보면, 오용 원인 10개 사항에 대한 원인도는 N1, N2, N3 학습자가 각각 3.60, 5.20, 4.68로 학습 수준이 높은 N1 학습자가 가장 낮게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습 수준이 낮은 N2, N3 학습자는 높은 N1 학습자보다 ～てくれ 오용의 원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자가 후자보다 ～てくれ 오용 원인으로 제시한 10개 사항이 원인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7> ～てくれ 오용의 원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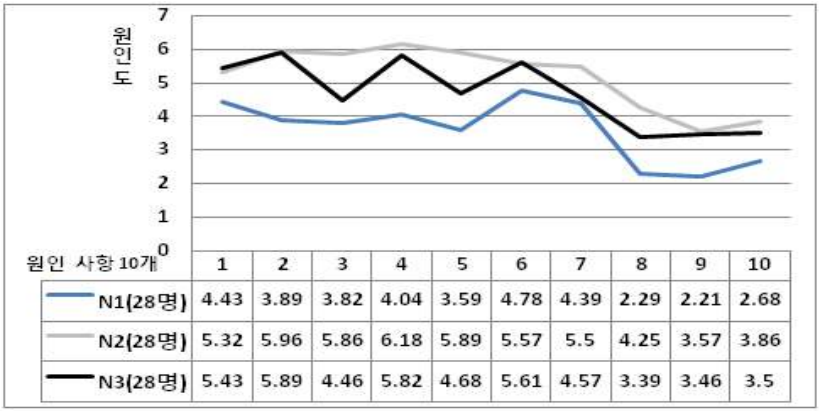
4.4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수준별 판단의 비교

4.4.1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수준별 판단

<그림8>은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수준별 원인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8>에서 보면, 오용 원인 10개 사항에 대한 N1, N2, N3 학습자의 원인도를 보면, 모든 원인에 대해서 원인❶❻의 N2와 N3를 제외하고 모두 N2, N3, N1 학습자 순서로 원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원인에 있어서 거의 N2, N3, N1 학습자 순서로 ～てくれ 오용의 원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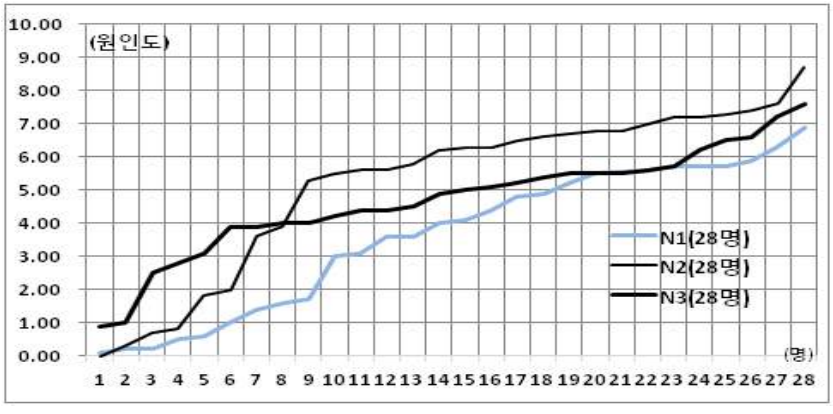
원인 사항 10개	1	2	3	4	5	6	7	8	9	10
N1(28명)	4.43	3.89	3.82	4.04	3.59	4.78	4.39	2.29	2.21	2.68
N2(28명)	5.32	5.96	5.86	6.18	5.89	5.57	5.5	4.25	3.57	3.86
N3(28명)	5.43	5.89	4.46	5.82	4.68	5.61	4.57	3.39	3.46	3.5

<그림8>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수준별 원인도

4.4.2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개인별 판단

<그림9>는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개인별 원인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9>에서 보면, 오용 원인 10개 사항에 대한 N1, N2, N3 학습자 개인별 원인도에서, 원인도 4.00 이하에서는 N3, N2, N1 학습자 순서로 학습자수가 많으나, 그 이상에서는 대체로 N2, N3, N1 학습자 순서로 학습자수가 많다. 그 일례로 원인도 5.00 이상에서 보면, N2 학습자 20명(71.4%), N3 학습자 14명(50.0%), N1 학습자 10명(35.7%)이다.

여기서는 학습자 개인별 원인 10개 사항의 원인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00 이하를 제외하고는 N2, N3, N1 학습자 순서로 학습자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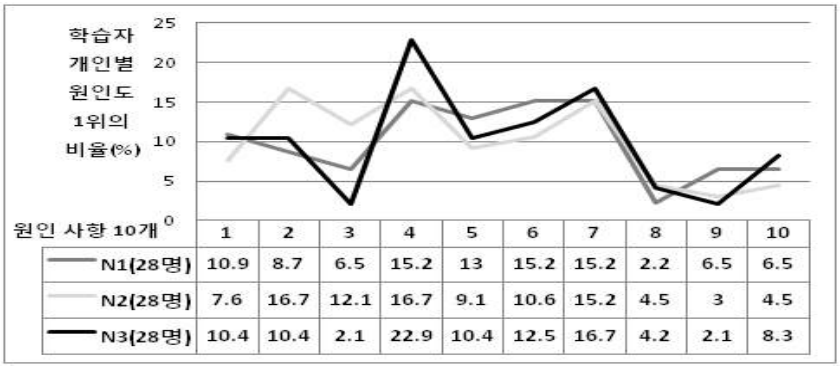
<그림9>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 대한 학습자 개인별 원인도

www.kci.go.kr

4.4.3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서 원인도가 가장 높은 사항의 비율

<그림10>은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서 원인도가 가장 높은 사항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0>에서 그 비율을 보면, N1 학습자는 원인❹❻❼(15.2%), N2 학습자는 원인❷❹(16.7%), N3 학습자는 원인❹(22.9%)가 가장 높다. 그리고 원인도가 가장 낮은 사항의 비율은, N1 학습자는 원인❽(2.2%), N2 학습자는 원인❾(3.0%), N3 학습자는 원인❸❾(2.1%)이다. 원인도가 가장 높고 낮은 것에서 대략적으로 N1 학습자는 N2, N3 학습자와 다르나, N2 학습자와 N3 학습자는 공통된 것이 있다.

여기서는 원인도가 가장 높은 사항의 비율에서 N1, N2, N3 학습자는 공통된 것도 있으나, N1, N3 학습자는 서로 다른 것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인 사항 10개	1	2	3	4	5	6	7	8	9	10
N1(28명)	10.9	8.7	6.5	15.2	13	15.2	15.2	2.2	6.5	6.5
N2(28명)	7.6	16.7	12.1	16.7	9.1	10.6	15.2	4.5	3	4.5
N3(28명)	10.4	10.4	2.1	22.9	10.4	12.5	16.7	4.2	2.1	8.3

<그림10>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에서 원인도가 가장 높은 사항의 비율

4.4.4 ～てくれ 오용 원인의 사항별 학습자의 원인도

<표1>은 '～てくれ 오용 원인의 사항별 학습자의 원인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1>에서 원인❶～❿의 학습자의 원인도 차이가 큰 것(2.00 이상)은, 원인❷의 N1 학습자(원인도 3.89)와 N2, N3 학습자(5.96, 5.89), 원인❸❹❺의 N1 학습자(3.82, 4.04, 3.59)와 N2 학습자(5.86, 6.18, 5.89)이다. 그리고 N1 학습자는 원인❻(원인도 4.78)❶❼ … ❿❽❾(2.21), N2 학습자는 원인❹(6.18)❷❺ … ❽❿❾(3.57), N3 학습자는 원인❷(5.89)❹❻ … ❿❾❽(3.39) 순서로 원인도가 높다. 원인❽❾❿은 모든 학습자의 원인도가 낮고 똑같이 순위도 낮다. 그리고 순위가 높은 원인 사항은 N1 학습자와 N2, N3 학습자는 다르나, N2 학습자와 N3 학습자는 유사하다. 학습자 전체(N1+N2+N3)의 순위는 원인❹(5.35)❻❷ … ❿

www.kci.go.kr

❽❾(3.08) 순서로 원인도가 높다. 이는 원인도가 높은 것은 N3 학습자의 순위와 유사하고, 낮은 것은 모든 학습자와 같거나 유사하다.

한편 학습자별 원인도가 가장 높은, 즉 순위 1위의 오용 원인 내역을 살펴보면, N1 학습자의 원인❻은 「… ～てくれ는 우리말 '～해 줘'에 해당 … '～해 줘'를 ～てくれ로 대응 …」N2 학습자의 원인❹는「… '～해 주세요' '～해 줘'를 ～てください, ～てくれ로 …」N3 학습자의 원인❷는「… ～て는 '～해'에 대응시키고, '～줘'까지 번역해서 ～てくれ를 사용 …」으로, '～해 줘'를 ～てくれ로 대응시키는 것이 학습자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순위가 높은 원인은 N2와 N3가 다소 유사하나 대체로 학습자에 따라 다르고, 낮은 원인(원인❽❾❿)은 유사하여 모든 학습자가 ～てくれ 오용 원인으로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습자가 생각하는 ～てくれ의 주된 원인은 원인❹❻❷로 학습자 수준별로 다르나, '～해 줘'를 ～てくれ로 대응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てくれ 오용 원인의 사항별 학습자의 원인도

～てくれ 오용 원인(10개 사항)	학습자별 원인도(평균득점) <순위>			
	N1 (28명)	N2 (28명)	N3 (28명)	전체 (84명)
❶ 일본어 「～て」는 우리말 「～해」, 「～てくれ」는 「～해 줘」에 대응시켜, 우리말 「～해」(「～て」)보다 친근감이 있는(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해 줘」(「～てくれ」)를 사용하고 있다.	4.43 <2>	5.32 <7>	5.43 <4>	5.06 <4>
❷ 친한 상대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て」이나, 이는 우리말 「～해 줘」에 해당한다, 이에 「～て」는 「～해」에 대응시키고, 「～줘」까지 번역해서 「～てくれ」를 사용하고 있다.	3.89 <5>	5.96 <2>	5.89 <1>	5.25 <3>
❸ 일본어 「～て」「～てくれる」는 각각 우리말 「～고/서」「～(해)주다」로 번역된다. 이들 일본어 「～て」「～てくれる」는 요구 문말(文末) 표현으로 사용되나, 우리말 「～고/서」「～(해)주다」는 사용되지 않는다. 학습자는 이들 우리말 영향으로 「～て」「～てくれる」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てくれ」를 사용하고 있다.	3.82 <6>	5.86 <4>	4.46 <7>	4.71 <7>
❹ 우리말 「～해 주세요」「～해 줘」를 각각 일본어 「～てください」 「～てくれ」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	4.04 <4>	6.18 <1>	5.82 <2>	5.35 <1>

www.kci.go.kr

하고 있다.				
❺ 우리말 '「~해 주다」 → 「~해 줘」'처럼 일본어 '「~てくれる」 → 「~てくれ」' (「くれる」를 「くれ」로 줄여서)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3.59 <7>	5.89 <3>	4.68 <5>	4.72 <6>
❻ 사전 등에서 보면 「~てくれ」는 우리말 「~해 줘」에 해당한다. 친한 상대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널리 사용하는 「~해 줘」를 「~てくれ」로 대응시켜 사용하고 있다.	4.78 <1>	5.57 <5>	5.61 <3>	5.32 <2>
❼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등에서 많이 나오는(접한) 명령조 「~てくれ」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이나 장면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다.	4.39 <3>	5.50 <6>	4.57 <6>	4.82 <5>
❽ 「~てくださる」(→「~てください ます」)를 「~てください」로 사용하는 것처럼 「~てくれる」(「~てくれます」)를 「~てくれ」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2.29 <9>	4.25 <8>	3.39 <10>	3.31 <9>
❾ 공손체에 익숙한 학습자가 「~てくれますか」에서 「ますか」를 생략한 보통체 「~てくれ」를 사용하고 있다.	2.21 <10>	3.57 <10>	3.46 <9>	3.08 <10>
❿ 우리말 「~해 줄래」를 일본어 「~てくれ」로, 즉 「~래」와 「~れ」의 발음, 어감 등이 유사하다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68 <8>	3.86 <9>	3.50 <8>	3.35 <8>

4.5. ~てくれ 오용의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

<표2>는 '~てくれ 오용의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2>에서 ~てくれ의 오용을 '경미'한 오용이라고 판단한 학습자의 원인도를 보면, N1 학습자는 원인❶(6.00)❹(6.00), N2 학습자는 원인❷(5.70), N3 학습자는 원인❹(6.60)가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보통'으로 판단한 학습자의 원인도를 보면, N1 학습자는 원인❼(4.00), N2 학습자는 원인❺(7.33), N3 학습자는 원인❻(5.00)가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한 오용으로 판단한 학습자의 원인도를 보면, N1 학습자는 원인❻(5.20), N2 학습자는 원인❹(6.58), N3 학습자는 원인❷(6.62)가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てくれ 오용의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는 경미한 오용의 N1과 N3 학습자의 원인❹를 제외하고, 모두 1위(원인도가 가장 높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てくれ 오용 원인별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 판단의 차이가 큰 것

www.kci.go.kr

(3.00)은, 원인❶에서 N1 학습자의 ①경미(6.00)와 ②보통(2.30), 원인❷에서 N1 학습자의 ①경미(5.50)와 ②보통(2.30), 원인❹에서 N1 학습자의 ①경미(6.00)와 ②보통(2.70) ③중대(2.67), 원인❺에서 N1 학습자의 ①경미(5.42)와 ③중대(1.67)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원인❶❷❹❺에서 N1 학습자의 ①경미와 ②보통 ③중대에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N1 학습자의 합계에서도 ①경미(4.63)와 ②보통(2.67)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てくれ 오용의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는 학습 수준이 높은 N1 학습자가 낮은 N2, N3 학습자보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2> ～てくれ 오용의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

학습자	(명)	～てくれ 오용 원인 (<표1> 참조)											
		중대성*	원인❶	원인❷	원인❸	원인❹	원인❺	원인❻	원인❼	원인❽	원인❾	원인❿	평균
N1 (28명)	12	①경미	6.00	5.50	4.33	6.00	5.42	5.50	4.58	2.50	3.00	3.50	4.63
	10	②보통	2.30	2.30	3.40	2.70	2.44	3.70	4.00	2.00	1.50	2.40	2.67
	6	③중대	4.83	3.33	3.50	2.67	1.67	5.20	4.67	2.33	1.83	1.50	3.15
N2 (28명)	10	①경미	4.50	5.70	5.20	5.20	5.20	4.60	4.90	3.20	2.70	5.00	4.62
	6	②보통	5.83	6.50	5.67	7.00	7.33	6.17	5.33	6.50	4.83	4.83	6.00
	12	③중대	5.75	5.92	6.50	6.58	5.75	6.08	6.08	4.00	3.67	2.42	5.28
N3 (28명)	5	①경미	5.00	6.00	4.80	6.60	3.40	6.00	4.40	2.40	2.00	3.40	4.40
	10	②보통	4.20	4.90	3.80	4.70	4.90	5.00	4.60	3.00	2.80	3.90	4.18
	13	③중대	6.54	6.62	4.85	6.38	5.00	5.92	4.62	4.08	4.54	3.23	5.18

*오용의 중대성은 '4.1.5 오용 ～てくれ의 전달상의 중대성'을 참조. 그리고 '①경미, ②보통, ③중대'는 각각 '①경미한 오용, ②경미하지도 중대하지도 않은 오용, ③중대한 오용'을 나타낸다.

5. 맺는 말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てくれ 오용에 대한 효율적인 정정 및 지도를 위해서 학습자 수준별 원인 및 그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학습자(N1, N2, N3)는 50.0% 이상이 ～てくれ의 학습 경험이 있고, ～てくれ 오용을 범한 적이 있다. 그리고 모든 학습자는 28.4% 이하로 정정 받

www.kci.go.kr

은 경험이 많지 않으나, 67.9% 이상이 들은(본)적이 있다. 또한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てくれ 오용에 대해서 언어전달상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높았다.

(2)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てくれ 오용 원인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원인의 10개 사항에 있어서 거의 N2, N3, N1 학습자 순서로 ～てくれ 오용의 원인도가 높다.

(4) 학습자 판단(원인도)의 순위가 높은 원인은 N2와 N3 학습자가 다소 유사하나 대체로 학습자에 따라 다르고, 낮은 원인(원인❽❾❿)은 유사하여 모든 학습자가 ～てくれ 오용 원인으로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てくれ의 주된 원인은 원인❹❻❷로 학습자 수준별로 다르나, 공통적으로 ～てくれ를 '～해 줘'로 대응시키고 있다.

(5)～てくれ의 오용 중대성 판단에 따른 학습자별 오용 원인도의 차이는 학습 수준이 높은 N1학습자는 다소 관계가 있으나, 낮은 N2, N3 학습자는 그다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의 결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의뢰 표현 ～てくれ 오용 원인이 다양하고 그 정도(원인도)도 다르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용 정정 및 지도에서 학습자의 오용 원인의 다양함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금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도 종종 범하는 오용에 대한 원인과 그 원인도를 분석하고 싶다.

【参考文献】

趙南星(2006a)「오용 원인의 실험적 분석」『동북아문화연구』제1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267-289.

_____(2006b)「'形容詞(-い)+だと思う'형의 오용 원인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판단」『일어일문학연구』제56집 1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165-185.

金昌男(2006)「日本語と韓国語の依頼表現の使用実態」『일본문화학보』제3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3-42.

趙南星(2005)「일본어 오용 분석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일본어학연구』제13집, 한국일본어학회, pp.167-187.

_____(2004)「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 분석의 현황과 과제」『일본어학연구』제9집,

www.kci.go.kr

한국일본어학회, pp.153-174.
_____(1999)「韓国人 日本語学習者의 依頼 文末表現에 대한 分析과 評価 : 男性의 경우」『일본학보』제43집, 한국일본학회, pp.253-265.
_____(1997)「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依頼の文末表現に対する分析と評価」『일본어문학』제3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93-111.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17.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www.kci.go.kr

<要旨>

学習者水準別の誤用(-てくれ)原因について

趙南星

本稿は、学習者の誤用に対する効率的な訂正および指導のため、学習者水準別(日本語能力試験) の依頼表現「-てくれ」の誤用原因およびその程度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主な結果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1) 全ての学習者(N1、N2、N3)は50.0%以上が「-てくれ」の学習経験があり、「-てくれ」の誤用を犯したことがある。そして、全ての学習者のうち訂正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は28.4%以下と多くはないが、67.9%以上が聞いた(見た)ことがある。また、学習水準が低いほど「-てくれ」の誤用について言語伝達上で重大だと判断する学習者の比率が高かった。

(2) 学習水準が低いほど「-てくれ」の誤用の原因が多様であると考えている。

(3) 原因の10個の項目において、ほぼN2、N3、N1学習者の順で「-てくれ」の誤用原因度が高い。

(4)「-てくれ」の誤用の主な原因は学習者の水準別に異なるが、共通して「-てくれ」を韓国語の「-해줘」に対応させている。

A Study of the Reasons for the Misuse of -tekure based on Learners' Level

Cho, Nam-Sung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for and the extent of the misuse of the request expression -tekure based on learners' level in order to correct the misuse efficiently and teach its usage correctl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More than 50.0% of all the learners (N1, N2, N3) had studied the use of -tekure and misused the expression. Fewer than 28.4% of all the learners have had their misuse pointed out and corrected, but more than 67.9% were aware of the misuse. In addition, the lower the learners' level, the higher the number of learners who think that the misuse of -tekure is significant in communication.

(2) The lower the learners' level, the more the learners think of reasons for misusing -tekure.

(3) Of the 10 reasons for misuse of -tekure, the reasons given are highest in the order N2, N3, N1.

(4) Though the main reason of -tekure misuse differs by learners' level, all the learners use -tekure to commonly mean "-hae jwo"

www.kci.go.kr